

책 속에서 둘러보는 생생한 '자연사박물관'

〈자연 속의 인간〉(전7권) 시리즈

우리나라 자연의 살아움직이는 모습을 마치 한편의 영화처럼 생생하게 엮은 〈자연 속의 인간〉 시리즈가 나왔다. 생물학적인 정보와 지식을 건조하게 실은 자연도감이나 백과류와는 달리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으로서 자연에 접근했다는 점에 이 시리즈의 강한 개성이 묻어 있다. 《푸른나무》(전2권, 임경빈 임목육종연구소 상임연구교수), 《하늘새》(전2권, 원병오 경희대 명예교수) 《반딧별》(신유향, 경희대 명예교수) 《은빛 쉬리》(김익수, 전북대 생물학과 교수), 《들꽃》(이남숙, 이화여대 생물학과 교수) 등 전7권.

생물체를 주인공으로 한 다큐멘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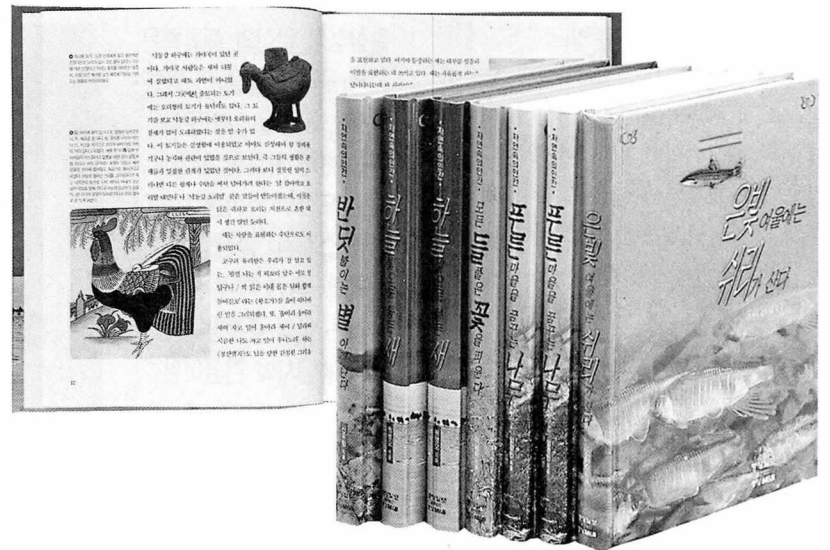
우리 땅과 강에 살고 있는 1만여종의 곤충과 200여종의 민물고기, 4천여종의 식물, 400여종의 새를 3천여장의 풍성한 사진으로 담아내고 있다. 무엇보다 이 시리즈의 미덕은 자연과 함께해온 역사, 우리 조상의 삶 속에 녹아든 민속과 문화유산, 그리고 오늘날 무심한 환경파괴의 현장에서 어느덧 사라지고 있는 생명체에 대한 안타까움을 동시에 담아내고 있다는 점이다.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 땅의 온갖 곤충과 나무·새·물고기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엮은 한편의 '자연다큐

멘터리'인 셈.

각권의 자연에 대한 인문적 저술은 우리 민족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온 삶에 닿아 있다. 예컨대 곤충과 어우러진 문화는 이른 봄, 발 밑에 벌레를 밟아죽일까 폭신한 짚신을 신었다거나 아름다운 나비모양을 문갑, 화장대 장식으로 사용한 데서 드러난다. 절집 근처 끝 풍경에 물고기를 달아놓은 것은 항상 눈을 뜨고 사는 물고기처럼 졸지 말고 구도에 힘쓰라는 뜻이라는 것도 흥미롭다.

환율이 나라를 세운 곳은 바로 태백산 '신단수'. 솟대·서낭나무의 예에서 보듯 우리 민족의 나무에 대한 숭앙은 깊다. 선조들의 정서가 한껏 깃든 소나무나 지조의 상징이던 대나무, 한지의 재료가 됐던 다투나무 등 우리 민족과 함께해온 나무들의 역사 또한 각별하다. 새에 대한 상징도 상서로운 것이어서 봉황은 왕비를, 원앙은 부부간 금슬을 상징했으며, 새의 울음소리로 풍흉을 점쳤다.

이렇듯 민족과 함께해온 우리 자연의 실체를 다루는 내용은 각권의 중심을 이룬다. 깨끗한 물에서만 사는 다슬기·우렁을 먹고 애벌레가 자라는 반딧불이, 재미있는 이름을 지닌 '유리창떠들썩팔랑나비' '외눈이지구 사촌나비' 등 곤충들의 생애, 서호에서만 살



던 '서호납줄갱이' 금강산에 살던 '금강모치', 크기와 맛이 으뜸이라 '종어'로 불리던 금강의 '여메기' 등 한국고유종의 물고기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노랑부리백로·검독수리·황새·팔색조, 여름새와 겨울새, 나그네 새와 텃새의 일생도 순환하는 자연생태계의 한 구성원으로 다루고 있다.

생명의 소중함 강조

자연에 대한 관심은 환경파괴에 대한 예방과 경계심을 갖게 한다. 하찮은 벌레일지라도 생태계 순환의 중간개체자로서 생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살충제를 마구 뿌려 들쥐떼가 마을에 출몰하거나 새들이 죽는 등 환경질서가 어지러운 한편, 외래 종이 우리 생태계를 교란시켜 재래종을 사라지게 하거나 무분별한 댐건설과 산림벌채로 하천생태계가 파괴됨으로써 고유종들이 사라져가는 안타까운 현실도 고발한다. 책 속에 펼쳐지는 '자연사박물관'을 둘러보고 나면 각 생물체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생명의 소중함, 나아가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절로 깨닫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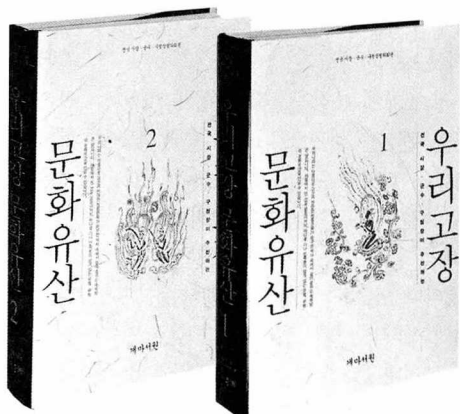
— 김지원 기자

중앙M&B/B5변형/각 300면 내외/각 30,000원

이름 없는 전국 문화유산 한데 모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엮음 《우리고장 문화유산 1·2》

'내 고장'에 대한 사랑은 그 지역의 문화유산을 아끼는 마음으로 표출되곤 한다. 95년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민선 기초자치단체장들의 모임 '전국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사무총장 김충환, 서울강동구청장)에서 지역의 이름없는 문화유산들을 발굴·소개한 《우리고장 문화유산》(개마서원)을 펴내 오랜만에 관과 민의 일치된 지역사랑의 결실을 보여



준다.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 9개도별 전국

228곳의 기초자치단체를 행정구역 순서에 따라 소개한 곳은 모두 선조의 숨결이 아직 남아 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봉동의 살곶이 다리는 조선시대 가장 긴 다리로 국왕이 뚝섬으로 행차할 때 이용했고, 송파구 풍납동 바람드리성(풍납토성)에 남아 있는 성벽의 면모에서 백제시대의 문화상을 읽을 수 있다.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의 도동서원, 광주시 동구 운림동에 있는 통일신라시대 옛절 중심사, 대전시 서구의 선사유적지, 경기도 광명시의 청동기시대 족장급 무덤인 지석묘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문화유산들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정원이 있는 강원도 춘천의 청평사, 천년의 역사를 지닌 인쇄문화의 메카 청주, 춘향이 노닐던 광한루와 사랑의 다리 오작교가 있는 전북 남원,

전남 진도군의 삼별초 항쟁지였던 돌로 쌓은 견고한 용상산성, 황학산이 병풍처럼 둘러서 있는 경북 김천의 직지사 대웅전, 조선의 3대 누각 중 하나인 경남 밀양의 영남루, 제주도 향파두리의 향몽유적지 등까지 국토의 발길 닿는 곳 어디서나 5천년 역사의 흔적을 느낄 수 있다.

지역마다 문화자랑거리와 자연경관, 그곳에 얽힌 전설도 읽을거리이며, 지역축제·민속축날·민속자료·특산물 등 문화정보와 그 지역 문화공보실 연락처도 친절히 밝혔다. 자칫 산만해지기 쉬운 방만한 내용을 800여 컷의 사진자료와 함께 깔끔하게 집대성, 아직 찾아보지 못한 우리문화유산을 돌아보는 길잡이로 유용하다.

개마서원/A5신/각 500면 내외/각 12,000원